

1인당 국민소득 4년만에 '뒷걸음'

韓銀 '2019년 잠정 국민소득'

3만2047달러로 4.1% '뚝'
글로벌 금융위기後 최대폭 ↓
GDP디플레이터 0.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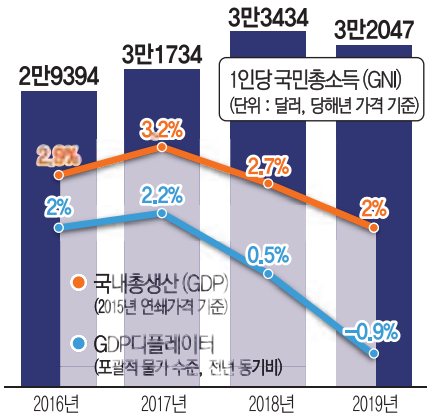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년 만에 뒷걸음쳤다. 감소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원화 기준 명목 GDP 증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저조했다. ▶관련기사5면

실질 GDP 성장의 4분의 3은 정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는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국민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NI는 3만 2047달러로 전년(3만3434달러)보다 4.1% 줄었다. 이는 2015년(-1.94%)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며, 2009년(-10.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GNI도 4% 감소한 1조65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9년(-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명목 GDP 또한 4.6% 줄어든 1조6420억 달러로, 2015년(-1.3%) 이래 첫 감소이며, 2009년(-9.8%)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원화로는 1914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0.9%) 이래 가장 낮은 증가세다. 실질

실질 GDP·GNI·GDP디플레이터
성장률 추이
※2018·2019년 잠정 ※출처: 한국은행



GDP는 2% 성장해 속보치와 같았다.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1.5%포인트를, 민간은 0.5%포인트를 각각 차지했다.

박성빈 한은 국민경제장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하향 국면에서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조정이 이어지면서 민간 쪽 성장세가 약화한 반면, 이에 대응해 정부가 경기 안정화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이 낮아진 것은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8년 1100.30원에서 2019년 1165.65원으로 5.94%(65.35원) 급등한 바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9% 하락했다. 이는 2006년 0.2% 하락 이후 첫 내림세로 1999년(-1.2%) 이래 가장 낮았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출발 공항에서 의료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5000명·사망 30명 넘었다

美 "韓·伊서 오는 모든 입국자, 공항서 의료검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43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30명을 넘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2·3·4·5·6·8·14·16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오후 5시 기준 851명 늘어난 518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하루 최대 증가 폭이다. 사망자는 31명으로 3명 추가됐고, 34명은 퇴원했다. 대구에서만 4000명 이상이 확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망자의 증가도 우려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가 치명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역당국도 앞으로는 치료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증 이상의 환자는 모두 40여 명이다. 중증이 18명, 위중한 상태가 20여 명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65세 이상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호흡기질환, 암 등 기저질환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앞으로 단순한 검체채취보다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 자체의 재배치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치료 중심 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임원하지 못한 확진자들은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처 환자 위중도에 집계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아직 이런 사례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사망률도 초기에 높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의료체

계가 잡힌 다음에는 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2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의료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검사를 출국 전 공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12시간 이내에 이 두 나라가 의료검사를 실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여행 규제' 검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자국민들에게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한 상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영업 비상 '편법 영업' 권유하는 보험사

추후 불완전판매 소지 커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영업이 어렵게 되자 슬그머니 '대면판매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고객을 만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영업망을 터준 것이다.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추후 설명의무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어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적한 바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고객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모바일 청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업현장에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를 재차 안내하는 가 하면, K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달까지 모바일 청약 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의 계절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되자 비대면영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면상품을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KB손보는 청약서 등을 모바일로 전송해 고객이 확인한 후 체크 표시를 하고, 모바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비대면채널 한계상 녹취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KB손보 관계자는 "대면채널이니 상품 설명은 고객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우니 청약서 등을 모바일로 전송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B손보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어려운 영업환경에 대면판매 원칙을 묵인해주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추후 불완전판매 분쟁 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영업방식은 대면판매도, 통신판매의 절차도 지키지 않는 변종영업 형태"라며 "추후 불완전판매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ij@

농협중앙회 계열사 대표 20일째 전면교체

이성희 회장 취임後 지도부 출사퇴...오늘 임추위

농협중앙회 계열사 대표와 임원이 대거 사퇴했다. 이달 20일째 열리는 이사회에서 후임 인사들이 사실상 결정될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인사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는 3일 이대훈 농협은행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와 임원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농협금융 출범 이후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3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이 은행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 박규희 조합감사위원장,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 김위상 농협대학교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4월 임기 만료로 따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등 11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내부 관계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해 공석이 되는 수장들의 후임은 이달 20일째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이달 말 대의원대회에서 이들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사퇴는 이 회장 취임 이후 예고됐던 인사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을 장악하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인사 물갈이는 농협 회장 선거 이후 꾸준히 포착됐다. 앞서 김병원 전 회장도 2016년 당선 이후 주요 계열사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선거 조직이 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일부 교체되기도 했다"며 "과거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 은행장 선임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 회장에 대한 임추위도 구성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코로나 이겨내자” 생산현장 챙기는 재계 총수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정영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격려 이메일.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 구미 찾아 “마스크 벗고 웃으며 만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구미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구미사업장에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한 뒤 생산 라인 근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어려움을 청취하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밝혔다. 구미사업장은 코로나19 확진이 현재까지 4명 나왔다.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22~24일,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일까지 스마트폰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비록 초유의 위기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회사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두 힘을 내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만나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구미사업장 방문에 따른 재택근무(자가격리)는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구미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있긴 했지만 방역이 다 끝났고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에는 경증환자들을 위해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는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물품 대금 1조 600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13일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협력사에 지급했으며,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꽃 소비 늘리기’에도 동참했다. 26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 지원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세트 등의 구호물품과 구호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중국 정부의 지침이나 중국 내 물류·통관 현황 등 중국 관련 정보를 협력사들과 공유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협력회사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정의선 수석부회장 “조기 경영안정 만반의 준비해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에게 “의연하게 대응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3일 현대차그룹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위기상황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보다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병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발전된 인류문화를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힘은 개개인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 및 대응체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그는 “정부 대응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임직원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임직원 여러분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룹 차원의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시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다양한 대응계획을 세워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조기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능동적으로 나서 위기 극복 의지를 내비친 노동조합에도 정 부회장이 직접 감

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생산현장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는 데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서로 물리적 간격은 멀어지더라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심리적 간격은 오히려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전 협력사 대표들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그는 공문을 통해 “안정적 부품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는 데 감사한다”며 “그동안 함께해온 저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어려운 협력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생산 차질은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수출 확대에 이르면 시일 내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정상화 후에 협력사에 추가 손실이 없도록 노사가 교섭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5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 협력사에 1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합의를 통해 시장 수요와 연동한 최대 생산 및 시장 적기 공급, 교섭기간 단축 등으로 매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가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 1588-1519 www.kead.or.kr

날개 꺾인 하늘길... 2주간 탑승객 150만 명 ‘급감’

항공업계 “위기 상황 당분간 지속”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87개국... 프라하 등 노선 중단 잇따라
국제선 탑승객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 국내선도 42% 줄어
항공사들 앞다퉀 무급휴직·급여 반납 등 ‘고강도 자구책’ 마련

‘150만 명 증발’

지난달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단 2주 만에 급감한 항공 탑승객 수다.

이는 2018년 대구공항에서 한 해 동안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 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공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순식간에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을 오가는 발길이 끊기는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속수 무책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항공사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91만 106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41만50명) 대비 62% 급감했다. 2주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여행도 확연하게 줄면서 국내선 탑승객 수도 42.4% 급감해 사실상 반토막났다.

확진자 수 급증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무려 87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한국 방문자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결과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81개국이었으나,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가세하면서 87개국으로 늘었다.

국내 항공사들도 입국제한 국가가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큰 국가 간 노선 운항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이탈리아 직항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인천~로마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1991년 6월 27일 첫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취항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2015년 6월부터 인천~로마 노선에 첫 취항한 아시아나항공도 8~28일 운휴를 결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인천~밀라노 노선(이달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베네치아 노선(1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의 잠정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모든 직항노선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매년 100만 명의 한국인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아울러 체코 정부 조치로 대한항공은 7일부터 인천~프라하 노선 운항도 잠정 중

단기로 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한국 입국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입국)는 물론 아웃바운드(내국인의 출국)까지 모두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비행기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된 항공사들은 쥐어짜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개입 후점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대형항공사(FSC)들조차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전직원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과 33% 급여 반납을 조기 실시하고, 3월 급여 차감을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급여의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전 임원들이 일괄 사표제출이라는 고강도 자구안 발표 이후 2주 만에 내놓은 보다 강화된 특단책이다.

최고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도 항공업종의 시가총액이 5분의 1 이상 증발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산업계 ‘코로나19’ 新풍속

“접촉 줄이자” 임시 사무소·재택근무 “힘 모아 위기 극복” 무분규 임금협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근무 형태부터 노사 간 임금 협상까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기업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 본사 공장에 현장 업무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업무공간을 설치했다.

임시 업무공간은 야외에서 설비운전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현장 업무, 공장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하는 조정실 업무 등에 따라 근무 공간을 나누고 구성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불화질소(NF3), 육불화텅스텐(WF6), 모노실란(SiH4) 등 각 특수가스 제품 생산라인 구역별로 모두 9개소가 설치됐다.

제조업은 통상 사무직이 근무하는 본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나뉘 운영되며, 현장 근무자끼리 섞여 근무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근무자를 본사로 불러들이고, 현장 근무자끼리의 접촉도 최소화했다.

SK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이번 임시 업무공간 설치에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구성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공장 근무의 형태뿐만 아니라, 출퇴근의 형식도 파괴되고 있다. 그동안 회사로 출근해 구성원끼리 대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결정하며 물리적인 출퇴근을 없애버렸다. 최근 일부 대기업은



SK이노베이션 임금교섭 조인식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과 울산을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이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협상 조인식의 모습도 변했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약속을 하며 임금 협상을 축하하던 조인식 역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이날 서울 서린동 SK빌딩과 SK울산CLX를 화상으로 연결해 ‘2020년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참석자 역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으로 최소화했다.

무분규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임단협 교섭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있다”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 체계를 바꾸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롯데칠성음료



1970년 완행열차 카트 속에

1988년 동네 돼지갈비집에

1998년 소녀시절 소풍날에

2002년 외할머니댁 화채 속에

청량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진짜사이다는 그 곳에
칠성사이다

70th Anniversary
1950-2020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표 올바르게

확진자 5400명이 음압병상 한계치… 방역·치료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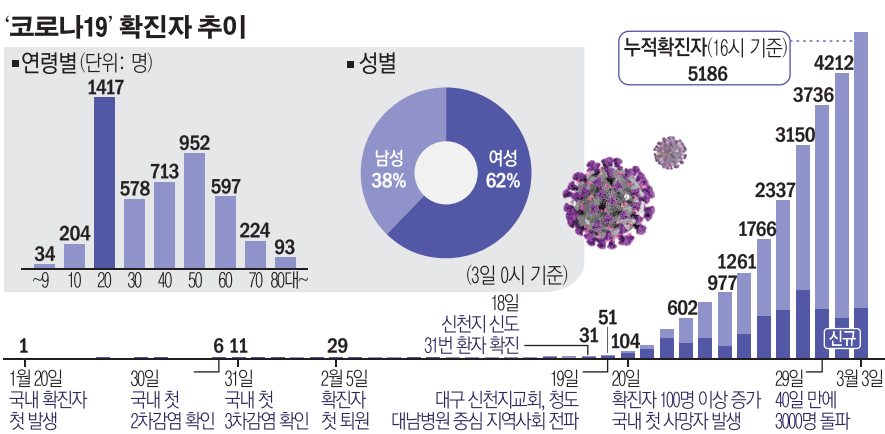
방역 전략 바뀌 진단검사 확대 조기발견… 고위험군 우선 검사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 경증 환자는 자거나 별도 시설서 치료
80%는 경증, 해열제만 먹어도 돼… 숨은 환자 최대한 찾아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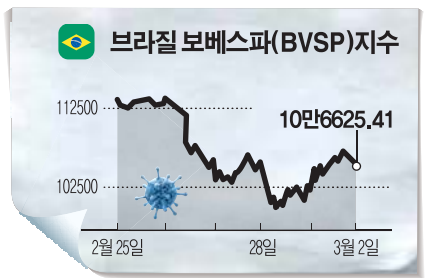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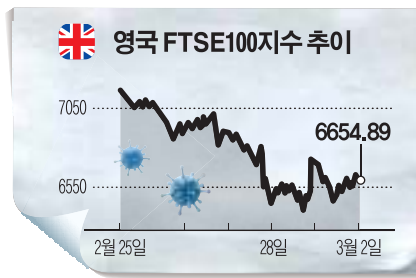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고 43일 만이다. 세계적으로는 발병지인 중국을 포함해 10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다. 발생국도 71개국으로 늘어 팬데믹(대유행)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 사망환자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달 17일 30명에 불과했으나, 18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인 31번 환자(61·여)가 추가되고, 다음 날부터는 31번 환자가 다녀간 대구 신천지교회(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를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

일에는 환자가 100명을 돌파하고, 옛새 뒤인 26일 1000명도 넘어섰다. 이때부터 하루 500명 이상의 환자가 추가되면서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는 5186명까지 불어났다.

가파른 확산세에 정부도 방역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과거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해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주력했다면, 현재는 진단검사 확대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천지 신도들을 우선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시민 중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를 확대한다.





“코로나發 금융위기 안된다” G7 공동대응 나섰지만…

G7 재무장관 등 전화회의서 협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後 처음
WB·IMF도 “긴급 대출 나설 것”
다우지수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
10여년前과 달라…실효성 의구심

주요 7개국(G7)이 세계 경제와 시장을 혼란의 늪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G7이 공조 대응에 나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10여 년 전과 달리, 나라마다 이미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인데다 부채 문제가 심각해 공조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긴급 전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협의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주요 7개국(G7)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조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7일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상티/AP뉴시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주도로 각국이 금융정책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적인 금융 완화를 단행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증시가 공황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이례적인 조치를 펼쳐 시장의 불안을 진화(鎮火)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장래 금리 인하 여지가 부족하고 경

기 불안이 장기간 계속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는 긴급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 선진국들이 이달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탰다. 파월 의장이 지난달 28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

일 각각 성명을 내놓았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들도 전날 G7 공조를 측면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리 인하 등 각국의 공격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와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공동 성

명에서 “긴급자금 대출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긴급 대출 이외에도 정책 조인과 기술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많이 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G7 공조 기대감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뉴욕증시는 2일엔 단숨에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5.1% 폭등해 2008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 중반대의 급등세를 보였다.

선물시장은 이미 연준이 이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100%로,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80%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금리를 낮출 확률도 60% 이상인 것으로 점쳐졌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하 여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도 1%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전염병 유행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여객 수요 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슈퍼 화요일’ 누가 웃을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나오는 ‘슈퍼 화요일(3월 3일)’을 맞아 유력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버니 샌더스(오른쪽)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주페어파크 센트럴몰에서, 유력 라이벌 조 바이든(왼쪽) 전 부통령은 텍사스 달러스에서 각각 대규모 유세 집회를 열었다. 14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는 전체 대의원 3979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1357명이 걸려 있다. 앞서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한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은 바이든을 지지했다.



아마존 ‘바가지와의 전쟁’

‘허위광고’ 100만개 이상 품목 삭제
마스크·손소독제 폭리에 강경 대응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필수 품목에 바가지를 씌우는 몰지각한 판매업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성명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올리거나 코로나19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목록에서 삭제했다며 판매자들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제3자 판매자들은 공정 가격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아마존에서 아주 높게 설정하거나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조처는 잡지 와이어드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와이어드는 일부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평소보다 5배 높게 책정한 것을 발견했다. 어떤 판매업자는 마스크는 정상 가격으로 제시하는 대신 무려 수백 달러에 달하는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아마존을 기만했다. 코로나19 관련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료용품의 가격 변동을 확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해 실제 매장에 가는 것을 피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쇄도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신속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나우’와 신선 식품 전문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스’ 수요가 급증해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알파벳 자율주행차〉

웨이모, 22.5억 달러 외부수혈 성공

2016년 알파벳서 분리 독립後 처음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인 ‘웨이모’가 처음으로 시도한 외부 자금 공모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웨이모는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외부에서 조달했다. 2009년 구글의 자율주행차량 프로젝트로 시작한 지 11년 만의 첫 외부 조달이었다. 2016년 알파벳에서 분리 독립한 후에도 웨이모는 모회사의 지원금에 의존해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자금 공모에는 사모펀드 실버레이크파트너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개발공사, 캐나다연기금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벤처캐피

털 안드레센호비츠, 자동차 부품사 매그너인터내셔널, 자동차 딜러 오토네이션 등이 동참했다.

존 크래프직 웨이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자금 조달로 인력, 기술, 운용 등 웨이모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차세대 센서 개발과 도입, 배달 서비스 ‘웨이모 비아’ 강화,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조달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모의 이번 자금 유치는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작년 5월 상장한 우버테크놀로지 주가가 계속 부진을 보이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모의 자금 조달이 예상 외 쾌조를 보인 것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아마존·넷플릭스·페북·게임·음식배달서비스…

코로나19 여파… ‘집콕株’ 주목

월가 ‘집콕지수’ 잇따라 개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피난처는 있기 마련이다. 월가의 일부 투자회사들은 조정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수혜주’만 따로 모은 지수를 만들어 내놓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회사 MKM파트너스는 최근 ‘집콕지수(STAY AT HOME INDEX)’를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택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동 제한에 걸려 집에 발이 묶인 이른바 ‘집콕

족’이 늘면서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지수에는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게임개발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 운송기구제조사 펠로톤,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 그래프 허브 등 33개 종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S&P500지수가 최근 5일간 8% 이상 하락한 가운데서도 상승했다. 넷플릭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5% 뛰었다. 미국 영화관 체인 AMC와 대형 극장 체인 시네마코홀딩스 주가가 15% 이상 폭락한 것과 대조된다.

UBS도 넷플릭스,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으로 구성된 ‘나스닥 인터넷 지수’를 개발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아스팔트

자동차가 달리는 아스팔트도
자연을 닮고 싶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 도로를 혁신합니다

30°C를 낮춘 친환경 시공으로
에너지 소비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로의 수명은 길게 늘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을 닮은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우리금융 ‘사내이사 2인 체제’로… ‘회장 부재’ 선제 대응

이사회, 경영 공백 최소화 방점
이원덕 부사장 사내이사로 선임

‘문책경고’ 손태승 거취 불투명
직무 대행·차기 회장 육성 포석



다.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손 회장의 부재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후임으로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서 손 회장 부재시 차선책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뽑아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을 맡기는 동시에 차기 회장 후보를 육성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사회는 또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과점 주주인 푸본생명 측 전문가 전 푸본은행 부회장을 추천했다. 전 부회장은 씨티은행(대만) 부사장, 중국신탁산업은행 수석부사장, 중국 플러튼금융지주 전무이사를 거쳐 푸본금융지주 수석부사장과 푸본은행 CEO를 지냈다.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푸본은행 부회장을 역임했다.

푸본생명 측 인사의 이사회 합류는 예정된 수순이다. 푸본생명이 지난해 9월 우리금융 지분 4%를 4000억 원에 매입해 과점 주주가 됐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과점 주주 측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 부사장과 전 전 부회장은 25일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파견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에 따라 변경된다. 새 비상임이사는 김흥태 예보 혁신전략실장이 맡는다.

우리금융은 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제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주주 책임경영과 주주·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해온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 사외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2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차기 회장 후보자로 손 회장을 최종 추천했다. 앞서 DLF 손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물론 건너 간다. 하지만, 이사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해 준 것이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근 기자 nova@

“신임 회장 인사권 존중… 정해진 수순” 이대훈 농협은행장 자진사퇴

전임 회장 중용으로 3연임
새 임기 3개월 만에 물러나

이대훈(사진) NH농협은행장이 3일 전격 사임했다. 새 임기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만이다. 은행 내부에서도 당일이 돼야 이대훈 행장의 사임 소식을 접했지만, 사실상 정해진 순서였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보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새로 당선된 후에는 회장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관례상 임기를 도중에 끝내곤 한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됐던 2016년 10월에도 김 전 회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둔 농협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행장 외에도 허식 부회장, 소성모 상호금융대표, 박규희 감사위원, 김원석 경제지주대표, 이상욱 농민신문사 대표, 김위상 농협대 총장의 사표가 처리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대교체’지만, 사실상 선거가 끝난 후 인사 라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을 챙겨주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아마도 주요 대표이사는 이미 (회장의 측근으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협금융 계열사 대표 중에선 이 행장만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4월 말이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행장만 사표를 낸 데는 이성희 회장과 김병원 전 회장과도 연계를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행장



은 김병원 전 회장으로부터 중용을 받았다. 이 행장은 줄곧 농협은행에 몸을 담다가 2016년 11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이동했다. 당시 중앙회장이 김병원 전 회장이다.

그러다 2017년 12월 제4대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는 2012년 신경ברי 이후 처음으로 농협은행장 3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2년 넘게 행장직을 유지할 것은 이 행장도 예상하지 못했다. 역사상 첫 3연임이 가능했던 것도 김 전 회장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성희 중앙회장이 신임 회장에 당선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김광수 회장은 농협 출신이 아닌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 정리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행장의 사퇴는 사실상 정해진 순서”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희 중앙회장은 지난해 23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전 회장에게 결선투표에서 패했다.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진 것이다. 이성희 회장은 올해 24대 선거에서 유남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로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공식적인 사임 절차가 완료된 직후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은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은행장 직무를 대신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윤석현(아랫줄 왼쪽 여덟번째)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태영(아랫줄 왼쪽 일곱번째) 은행연합회 회장, 11개 은행 CEO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 코로나 대출’ 금감원 검사 대상서 제외

윤석현, 은행 수장 11명과 회동
“소나기 피할 곳 제공해 주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금융감독원 여신 검사에서 제외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11개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규대출과 만기 연장, 상환유예,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간 지원한 금액은 5927억 원(4593건)이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7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6개 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 중이고, 마스크·생필품 기부 등 101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에서는 △영업시간 1시간 단축 △ATM 등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개인과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 연장 등을 실시 중이다.

윤 원장은 “과거 은행권이 ‘비울 때 우산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소나기 내릴 때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여신 면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사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3조8000억 원을 공급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행정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상황과 실적을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금융지원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달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정부 발표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총 7조1000억 원의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대구·경북 지역 고객 대상 비대면거래 수수료 감감 및 개인·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아울러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여신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현 기자 sunhyun@·곽진산 기자 jinsan@

윤종규 회장, 코로나 신속 대응 체계 확립

비상경영위 신설 전사적 지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 전사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3일 KB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윤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그룹 차원에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그룹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여의도를 비롯해 계열사 주요 건물 등에 설치돼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성원들의 이상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점검 및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금융서비스의 끊김 없는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근무 직원 인력에 대해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VPN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을 구축, 재택근무도 하고 있다. 지주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피해 발생에 대비한 인력운용 체계 마련과 대체사업장 분산근무 운영 등 실제 피해 발생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 발생 영업점이 실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체영업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편법 영업 권유하는 보험사

▶1면서 계속

한 보험설계사는 “예전에는 모바일청약도 대면판매가 원칙이라더니,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대면판매 원칙을 묵인하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생기면 덮어쓰게 될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검사 당시 경

영 유의사항에서 “모바일 전자서명은 고객과 비대면 상태에서 청약절차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TM규제를 회피를 위한 변칙적 보험 모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약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전달, 설명됐다고 판단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설계사가 모바일 전자서명을 할 수 없게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서 “대면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설명의무에 있어 통신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통신판매의 경우 녹취 등의 판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통신판매인 지 아닌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통신판매라면 통신판매 절차를 따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밖에도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건강 챙기며 할인 혜택까지... 보건 특화카드 '눈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카드사가 의료와 건강 관련 맞춤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한국 내 코로나19 전파는 조기종식 기대와 다르게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의료와 건강 관련 업종 결제 혜택을 높은 상품과 온라인 결제 혜택을 강화한 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병원·약국' 할인에 장년층 맞춤 혜택
 담아=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나'를 슬로건으로 한 '아이 액티브'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건강 및 생활 업종에 혜택을 담은 카드로 건강 업종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의료(병원, 약국, 동물병원), △피트니스(운동, 레저스포츠), △웰빙(건강보조식품, 유기농산물, 보험료) 부문별로 5%를 캐시백 해준다. 전달 이용 금액이 각각 40만~80만~12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1만5000원의 한도를 부문별로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웰니스를 추구하는 고객의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및 생활 업종에 특화된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16일 '삼성카드 숫자카드 V4' 시리즈를 통해 의료 관련 혜택을 담은 상품을 내놨다. '삼성카드 4 V4'는 50~60대 남성 또는 여성과 카드 혜택 조건이나 한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모든 가맹점에서 0.5% 결제일 할인을 제공하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1%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또 커피와 편의점, 제과점 업종에서 2% 할인해준다.

'삼성카드 5 V4'는 교육비 지출이 높은 30~40대 기혼 여성을 위한 상품이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2%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강의와 서점 등 교육

롯데, 의료시설 결제 5% 캐시백
 KB, 약국 이용 1.5%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대출 이자율 인하 등
 고객·가맹점과 코로나 고통 분담

업종에서 5%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숫자카드 V4에 라이프 스타일별 혜택과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등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혜택으로 숫자카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는 'KB 국민 골든라이프 올림카드'와 'KB 국민 골든라이프 티타늄카드'를 통해 운동 관련 결제 할인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시니어플러스' 상품에서 동물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5%를 포인트 적립해 준다.

◇'코로나19' 확산에 의료기관 무이자 할부 등 = 주요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과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연 매출이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의 사업자금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또 2~3개월 무이자할부 실시와 결제대금 청구 유예,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인 '마이샵'을 통한 각종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삼성카드는 입원 및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 단축,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확인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1일 단축한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결

의료·건강 혜택 카드

카드명	아이 액티브	V4	골든 라이프올림	카드의정석 시니어 플러스
카드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주요 혜택	의료, 피트니스, 건강보조식품 등 분야별 5% 캐시백 (최대1만5000원 한도)	병원과 약국 결제 시 최대 2% 할인 (숫자카드별 할인혜택 다름)	스포츠센터, 골프장 업종 이용시 월 20만 원까지 1% 포인트 적립	병원 및 동물병원 1.5% 포인트 적립 등

제대금 청구유예와 모든 업종 2~6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한다. 삼성카드 전체 회원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2~3개월, 종합병원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등 피해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6월 말까지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병원 업종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역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대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는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인 경우, 피해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한다.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신용카드 온라인 소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오프라인 가맹점 방문을 꺼리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까지 8개 전업 카드사가 집계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분석 결과, 온라인 결제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전체 함께 평균 21%보다 2% 증가한 수치다. 오프라인 비율은 1월 79%에서 2월 77%로 하락했다. 카드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온라인 소비 비율이 최대 3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선식품 배송·배달앱·간편결제 할인...

온라인쇼핑 '안성맞춤 카드' 굵어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주문 폭주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기 꺼리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라인쇼핑에 최적화된 카드는 무엇일까. 삼성카드는 온라인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 '삼성카드2 V4'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등 트렌디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가성비를 중시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가끔은 나를 위한 해외 여행에 투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쇼핑몰·배달앱·신선식품 배송·슈퍼마켓·생활잡화·넷플릭스 등은 5% 결제일 할인을 적용하고 직구를 포함한 해외 이용금액 및 항공권 구매 시에는 1.5% 결제일 할인을 해준다. 연회비는 2만 원이다.

현대카드는 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층을 겨냥해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 카드를 출시했다. 디지털 러버는 언택트 소비의 핵심 매개 중 하나인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스마일페이, 쿠팡페이)를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매월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 시 할

용 가능하며 연회비는 2만 원이다.

하나카드의 스마트 애니(Smart Any) 카드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범용성이 높은 카드다. 전월 실적, 이용 횟수, 할인한도 제한 없이 온라인 전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1.3%를 청구할인해준다. 또한 하나카드 모바일앱인 1Q(원큐)페이 앱 이용 시 청구할인은 1.4%로 확대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5000원, 국내외 겸용 1만 원이다.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SHOPPING'은 모든 온라인쇼핑 10% 할인이 기본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 카드를 등록하고 결제하면 5%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각의 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체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어 간편결제 선호 고객들에게 유용하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 원, 국내외 겸용 1만2000원이다.

신한카드 '딤온' 역시 각종 간편결제에 이 카드를 등록하고 국내 온라인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할인해 준다. 최고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요기요, GS프레시, 롯데 온라인 슈퍼에서 2만 원 이상 이용하면 10%를 추가해 총 20%를 할인해준다. 기본, 추가 할인 통합 월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3만 원부터다. 서지연 기자 sij@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삼성전자 지난해 국내서 34.2조 순매출 ‘역대 최대’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내 매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매출 비중은 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3일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순매출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34조1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 매출액을 제외한 것이다. 내부 매출액은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 제품을 넘길 때 발생하는 매출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순매출은 2007년 21조 1393억 원으로 처음 20조 원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30조 원(31조5452억 원)을 돌파했다. 이듬해인 2018년 33조9233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이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3년 연속 국내 순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키웠다.

국내 순매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CE(소비자가전) 부문의 지난해 글로벌 순매출은 44조7562억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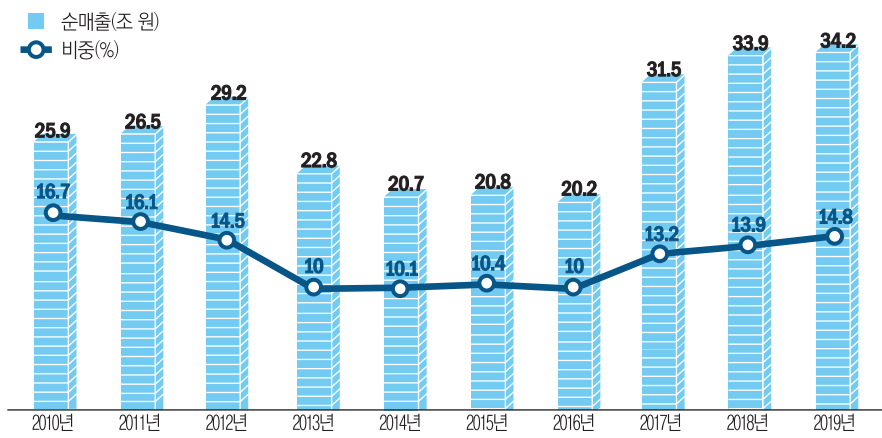
美·中·유럽선 모두 줄어
국내 비중 8년 만에 최고
코로나 ‘한국인 입국금지’
반도체 영업력 약화 우려

전년보다 6.3%, IM(IT·모바일) 순매출은 107조2662억 원으로 6.5% 각각 늘었다.

IM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플래그십 제품 판매 확대와 갤럭시 A시리즈 라인업 재편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CE 사업은 QLED·초대형 등 프리미엄 TV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가전 판매 호조, 냉장고·세탁기 등의 수익성이 개선돼 실적이 증가했다.

반면,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순매출은 95조5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는 64조939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줄었고, DP(디스플레이 패널)는 31조

삼성전자 국내 순매출 및 비중



539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메모리의 경우 D램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일부 프리미엄 제품군 수요 약세, 대형 디스플레이는 업계 공급 확대로 순매출이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전체 순매출액 가운데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한 14.8%를 기록했다. 2011년(16.1%) 이후 8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지역별 순매출 비중은 미주(32.1%), 유럽(18.5%), 아시아·아프리카(18.1%), 중국(16.5%), 한국(14.8%)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순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 특히 미주(-9.6%)와 중국(-

12%)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순매출이 줄었다.

한편 올해 새로운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다. 코로나19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중국, 이탈리아, 한국 모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력이 영향받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의 서버용 D램 물량을 경쟁사에 일부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따르면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컴퓨터·전자·광학제품(9.7%)이며, 전자기기 제품(5.4%)이 그 뒤를 잇는다. IT기기와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전 사업영역이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팬톤삭스 푸드라인〉

“순댓국 색 양말도 있습니다” 제일기획의 엉뚱발랄한 도전



온라인물 ‘제삼기획’ 오픈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들 판매
전자상거래 진출 정관변경 추진

제일기획이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최근 생활밀착 신문물 상점 ‘제삼기획’이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오픈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회사는 제삼기획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 압박, 압박까지 운명이라 여기고 일해온 광고회사, 제일기획의 프로들이 새로운 물건만 파는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제일기획이 아닙니다. 제삼기획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선 다양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재미있는 물건을 파는 게 모토다. 상품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재미있는 상품은 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미 사이트에선 독특한 컨셉트의 제품들을 팔고 있다. ‘팬톤삭스 푸드라인’은 양말 세트에 직장인의 쏘울푸드 컨셉트를 입혀 재탄생시킨 제품이다. 짜장면, 순댓국, 페퍼로니피자 등 각 음식을 구성하는 색상

을 양말에 입혀 재미를 준다.

‘버티갯달력’은 일반 달력과 달리 주말의 스케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 구현이 가능하다. 또 이번 달을 버텨야 하는 이유를 달력 맨 위에 적을 수 있다. 회사 측은 “달력을 볼 때마다 이를 상기시켜 적절한 버티기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디자인”이라고 소개했다. 입점 기업도 모집 중이다. 제삼기획의 남다른 상품기획을 만나 이 세상에 없던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광고인의 노하우를 담은 참신한 제품 소개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기획은 이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도 나설 예정이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제일기획은 주주총회에서 ‘제조 및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중고판매업’ 등 3가지 목적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광고마케팅 업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화학, 해외 LCD 편광판 적자…매각 서두른다

광저우법인 작년 179억 순손실
중국 경쟁 격화로 脫LCD 가속

LG화학이 지난해 ‘편광판’ 해외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해 편광판 사업부 매각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3일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의 해외 편광판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광저우, 베이징), 대만, 베트남 법인 등 4개 법인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7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 합계는 78억 원이었다.

편광판은 LCD 패널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LCD 패널 전후면에 각각 1장씩 총

2장이 부착돼 빛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해 색을 구현하는 필름이다.

이 4개 법인의 매출액은 2018년 2822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5054억 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전방 산업인 LCD 시장에 정부의 지원을 얻은 중국 업체들이 대거 등판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자, 부진이 심화되며 편광판을 생산하는 LG화학 역시 손실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편광판 생산법인 중 가장 큰 손실을 본 곳은 광저우법인이다. 광저우 법인은 2018년 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순손실이 179억 원까지 확대됐다.

대만 법인 역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2018년 매출액 1706억 원, 당기순이익은 60억 원을 달성했으나, 지난해 매출액은 19% 감소한 1378억 원, 당기순이익은 44% 감소한 31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베이징과 베트남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2억 원, 20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LG화학의 탈(LCD) LCD 전략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LCD가 아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LCD 유리기판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편광판 사업 역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EV 콘셉트카 ‘프로페시’ 공개

현대자동차가 3일 새로운 전기차(EV)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를 공개했다. ‘프로페시’는 차량의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하나의 곡선’으로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내부 디자인은 운전대 대신 운전석의 양쪽에 조이스틱(joystick)을 장착해 운전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새롭고 직관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3일 새로운 전기차(EV)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를 공개했다. ‘프로페시’는 차량의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하나의 곡선’으로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내부 디자인은 운전대 대신 운전석의 양쪽에 조이스틱(joystick)을 장착해 운전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새롭고 직관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LG 그램’노트북 캐나다 출시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을 캐나다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LG전자는 최근 캐나다 토론토 소재 ‘스페이드(Spade)’ 행사장에서 현지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LG 그램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휴대성, 내구성, 디자인 등 LG 그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집중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LG 그램 축제(LG gram

Carnival)’를 주제로 저글링, 공중 곡예, 무게 측정 게임 등 LG 그램을 활용한 이색 이벤트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곡예사들은 17형 대화면에 휴대성까지 겸비한 ‘LG 그램 17’의 ‘가볍다’는 강점을 표현하기 위해 ‘LG 그램 17’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는 저글링을 선보였고, 한 손으로 ‘LG 그램 17’을 든 상태에서 공중 곡예를 펼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 그램’ 캐나다 출시 행사에서 곡예사가 LG 그램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다.

LS전선, 1000억 바레인 해저케이블 수주

LS전선은 바레인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토키로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LS전선이 수주한 사업은바레인 본섬과 동남부 하와르 섬 사이 25km를 해저 케이블로 잇는 것이다. 하와르 섬은 천혜의 자

연환경을 보유했다바레인 정부가 관광 단지로 본격 개발 중이다.

LS전선은 사우디아라비아EPC 업체인 알 기아즈로부터 제품 공급부터 전기, 설치 공사까지 일체를 수주, 2021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때마침 잔액이 부족하네...”



세상은 넓고 송금 할 일은 많다

살다보면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하죠
그런데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신한카드 My송금**을 이용하세요!

국내최초 신용카드 기반 간편 송금서비스
신한카드로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리세요



신한카드 My송금이란?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 /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송금 서비스입니다.

*신한Pay FAN, 신한카드 앱에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y송금 이용한도 (1일 2회, 20만원 한도 / 월 10회, 100만원 한도)

*이용한도는 신용 / 체크카드 송금 모두 합산하여 일 한도, 월 한도로 구분하여 적용

※신용카드납입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약정금리+3%, [최고 연 24%]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상사법정아울+3% 적용 ※유효한 신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My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한BC, 법인카드, 가족카드,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 및 체크카드의 소액신용한도를 통한 이용은 제한됩니다. My송금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신용/체크카드의 매출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 대상 및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기타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 및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상품별 연회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심 의결 제 20200204-Cpn-001호 (2020.02.04~2021.02.03)

Lead by 신한카드

소형 SUV 비교

길이x너비x높이(mm)	4570x1820x1570	4615x1800x1565	4375x1800x1600	4410x1810x1635	4225x1810x1615
엔진	르노삼성 XM3	현대차 코나	기아차 셀토스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쌍용차 티볼리
가격대(만 원)	1.3 가솔린, 1.6 가솔린 1719~2532	1.6 가솔린, 1.6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 1867~2575	1.6 가솔린, 1.6 디젤 1965~2865	1.2 가솔린, 1.35 가솔린 1910~2711	1.5 가솔린, 1.6 디젤 1793~2654

르노삼성 'XM3' 다음 주 출시...소형 SUV 5파전

국내 완성차 5사, 같은 차급에서 '이례적' 대결
XM3, 1719만원부터...가격·편의사양이 경쟁력

쿠팡형 SUV 'XM3' 출시를 일주일 앞둔 르노삼성자동차가 세부 모델과 가격을 공개했다.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과 1000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하는 가격대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춰 향후 소형 SUV 시

장은 5파전이 될 전망이다.

3월 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XM3는 SUV와 세단의 특성을 결합한 신차로 소형 SUV(B세그먼트)에 해당한다. 경쟁 차종으로는 현대차 코나, 기아차 셀토스,

한국지엠(GM) 트레일블레이저, 쌍용차 티볼리가 거론된다. 국내 완성차 5사가 같은 차급 모델로 경쟁을 벌이는 건 이례적이다.

2015년 티볼리가 처음 개척한 소형 SUV 시장에는 곧이어 코나가 뛰어들었고, 지난해부터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가 합류해 치열한 경쟁 중이다.

XM3는 너비(전폭)가 1820mm로 다른

경쟁 차종과 비슷하다. 반면, 길이(전장)와 높이(전고)는 각각 4570mm, 1570mm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앞뒤로 160mm 길지만, 높이는 65mm 낮다. XM3가 루프부터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라인이 이어지는 쿠팡형 디자인을 갖췄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XM3의 동급 대비 높이가 가장 낮지만, 최저 지상고(지면과 차체 사이)는 186mm로 가장 높아 넓은 운전 시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XM3의 파워트레인 1.3리터와 1.6리터로 다운사이징한 가솔린 엔진으로 선보인다. 1.3리터 엔진인 TCe260은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개발한 신형 4기통 터보 엔진으로 추후 르노의 주력 제품이 될 전망이다. 최고출력 152마력, 최대토크 26.0kg.m의 힘을 내고 리터당 복합연비는 13.7km다.

동급 중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유일하게 1.3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출시된 상태다. 출력과 토크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연비는 XM3가 더 우위에 있다. 다운사이징 엔진만 놓고 보면 트레일블레이저와의 경쟁 구도인 셈이다.

이 밖에 티볼리는 1.5리터 가솔린과 1.6디젤, 코나와 셀토스는 1.6 가솔린 및 디젤로 제공된다.

판매가격은 XM3가 1719만~2532만 원으로 설정돼 동급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 기본 오토 트림을 놓고 비교하면 △티볼리 1793만 원 △코나 1867만 원 △트레일블레이저 1910만 원 △셀토스 1965만 원으로 XM3가 가장 우위에 있다.

편의 사양 면에서도 XM3는 LED 퓨어비전 헤드라이트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등 선호도가 높은 기능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제공된다.

XM3는 르노삼성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차종이다.

지난달 르노삼성차는 전년 대비 65.3% 급감한 3384대 수출에 그쳤다. 회사 측은 이를 XM3 수출 물량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 본사의 수출 물량 배경에는 안정적 내수 생산 경험이 영향을 주는 만큼, XM3가 내수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고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회사의命運이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창욱 기자 woogi@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HANSUNG
ENTERPRISE

"크라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LG화학, 공장 배기가스로 전기 생산 여수산단에 신재생발전기 3기 설치...내년 7월 완공

LG화학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제2공장에 신재생발전 시설을 구축한다.

3월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여수산단 제2공장에 가스 터빈 발전기(GTG) 2기와 증기 터빈 발전기(STG) 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GTG란 납사 크래킹 센터(NCC)에서 납사를 분해하는 중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부산 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NCC는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인 납사(Naptha)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핵심 기초재료를 만드는 설비다. STG는 GTG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회수해 연소용 공기로 재활용하는 설비다. 두 장치 모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재생발전 장치다.

업계 관계자는 "STG와 GTG 등 신재생발전 시설로 입지한 해소, 송배전 설비 비용절감, 연료비 절감,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1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470억 원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 어떤 설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LG화학 여수 NCC 공장 전경.

LG화학은 현재 여수와 대산공장에 각각 2기, 4기의 GT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최근 대산에서 1기를 고효율로 교체하며 효율을 두 배로 높였다. 여수에서도 1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마칠 예정이다.

한편, LG화학은 2018년부터 여수산단에 2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NCC와 고부가 폴리올레핀(PO) 설비 등을 짓고 있다. 생산 규모는 각각 80만톤(t)이다. 2022년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달 90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며 여기서 확보한 자금을 석유화학 부문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여수공장 생산시설 증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세계 첫 P2P금융법 도입, 시장 건전성 높아질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② **김성준** ‘렌딧’ 대표

“규정이 명확하면 위법 행위도 줄어든다. 올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위법에 가까운 행위를 해도 처벌 규정 자체가 모호해 이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최근 발생하는 P2P 업계의 원금 손실, 연체율 급증 등의 문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P2P 금융은 대출을 원하는 주체와 여윌돈을 굴리려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렌딧은 P2P 업계 개인신용대출 부문 1위 업체다. 최근 개인신용대출 누적액 2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 종로 종각에 자리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선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온투법 통과를 위해 기꺼이 투사가 됐던 이미지와는 상반됐다. 김 대표는 2018년 10월 발족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의회의운영위원장으로서업계를 대표해 온투법 통과를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를 포함한 업계의 노력이 정부, 국회의 뜻과 맞물려 결실을 맺었다. 올해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P2P 금융법이 시행된다.

온투법 통과는 ‘규제 혁신의 단비’라는 수식어처럼 스타트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경사’였다. 동시에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제정된 새 금융산업법이기도 하다. 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특히 금융기관이 P2P 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투자로 소비자가 간접적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웹에서 공개하는 숫자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만약 어떤 은행이 P2P 회사에 투자하면 실사를 3~4 할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간접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산업 육성이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P2P 업체 중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사)이 나오기 힘든 배경 중 하나로 법정 정리가 불분명했던 문제가 있다”며 “렌딧 역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핀테크 산업에 속하는데도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김 씨는 “미국의 경우 전체 금융 시장에서 P2P가 차지하는 비율이 6%가 넘으며, 올해는 8%까지 차지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0.01%도 안 되는 수준이기에 아직도 산업 도입 단계”라고 덧붙였다.

렌딧은 2015년 4월 설립된 뒤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털인 알토스벤처스로부터 국내 P2P금융 기업 최초로 투자를



김성준 렌딧 대표가 서울 종로구 렌딧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투법 8월부터 시행...소비자 보호 강화·산업 육성 기대감 ‘렌딧’ 개인신용대출 부문 1위...업계 첫 공공기관 투자 유치 신용등급 총 20개 구간으로 세분화, 개인별 적정금리 산출

유치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P2P 업계 최초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 유치에도 성공해 총 누적 투자액이 283억5000만 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P2P 업계에서 두각을 낸 렌딧만의 경쟁력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5년 동안 개인 신용대출만 취급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쌓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며 동산, 부동산을 취급하는 P2P 업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간 렌딧이 빠르게 성장한 점을 감안해 올해 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근간이 되는 법도 시행될 예정이고, 5년 동안 데이터도 쌓였기 때문에 자신 있다”며 “신용대출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사람들이 분산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 관리 방식의 기본으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산투자의 두 가지 중요한 점으로 나눠 담는 것과 상호 연관성이 없을 것을 역설했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주택 A, B, C를 소유한다면 A의 가격이 오를 때 나머지 주택이 상호 연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렌딧은 실시간 분산투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렌딧은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0개 이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원금 손실률이 9.2%로 나타났고, 200개 이상에서는 0.88%, 300개 이상에서는 0.22%로 낮아졌다. 김 대표는 “분산투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P2P에 투자할 때도 A, B, C로 나눠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관성이 없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렌딧의 시스템은 분산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2금융권 사이에 금리절벽을 해결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렌딧을 창업한 계기 자체가 한국 제2 금융권의 고금리에 좌절해서였다. 미국에서 4년 차 창업에 접어들었던 김 대표는 3000만 원을 벌리러 한국에 왔다가 저축은행에서 22%의 금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결국, 그는 미국 P2P 업체를 통해 7.8%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그는 “현재 15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제2 금융권의 10% 후반에서 20% 중반의 고금리”라며 “제 경험처럼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우면 고금리 대출을 선택하기 쉽고, 이게 바로 금리 절벽”이라고 설명했다. 렌딧은 테크핀의 방법으로 대출자마다 적정 금리를 산출한다. 구간은 총 20개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리 절벽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대출자가 신용등급에 따라 받아야 하는 금리를 책정받아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자율주행차 경쟁 가속페달 밟는 ‘포털 라이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포털업계의 미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장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미래 기술 연구개발 조직인 ‘네이버랩스’를 통해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으며 카카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1%를 차지하고 2035년에는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ICT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를 시작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화 정도에 따라 레벨 0에서 5까지 총 여섯 단



네이버

서울 고정밀지도 제작 한창 관련 업체들과 서비스 공유

계로 나뉘는데, 레벨 4는 차량 주행 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운행하는 단계다.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완료되면 카카오는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카카오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이달 중순부터 기술 테스트

방침이다. 네이버는 네이버랩스를 통해 2017년 2월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마곡과 상암, 여의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밀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도 서비스처럼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나타나 네이버랩스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상용화 지역은 일부 허가된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털업계 중에서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용화된다면 시장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기술적으로는 뒤처져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뒤처진 기술에 더 집중해 개발한다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대중교통 등에 우선 적용해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대구·경북 힘내세요!” 한샘, 10억 통 큰 기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한샘은 사랑의 열매에 10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쪽방촌 어르신 800여 명과 지역아동센터 110개소의 저소득가정 아동 2000여 명, 일선 근무자 등을 위해 쓰인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되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던 대구 광역푸드뱅크 등 사회복지 단체와 지역아동센터의 무료급식 활동이 중단됐다. 쪽방상담소 거주자들은 주 2~3회 이용해오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은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외부 출입마저 제한되면서 마스크 등 방호용품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 긴급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고충을 알게 돼 사랑의 열매와 함께 긴급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LG U+, CS 전담 자회사 ‘U+홈서비스’ 출범

LG유플러스는 자사 홈·미디어 고객센터 서비스(CS)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U+홈서비스(유플러스홈서비스)’가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U+홈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IPTV·인터넷·AI스피커·IoT와 같은 홈·미디어 서비스를 설치·개통하고 유지·보수(A/S)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

다. 더욱 고도화된 직무교육과 응대로, 고객들의 서비스 설치가 신속해지고 A/S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U+홈서비스는 홈매니저(현장직) 800명, 내근직 200명을 비롯해 1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전체 5개 담당, 8개 팀, 27개 센터, 45개 CS실이다.

U+홈서비스는 개통 및 A/S 품질의 혁

신적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멀티직무’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A/S 출동 감축, 개통 처리시간 단축에 집중하고, 고객 응대 기본기와 같은 현장 접점 교육을 강화한다.

합리적 사내 소통 체계와 절차로 구성원들이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 문화도 조성한다. 다양한 현장 소

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기적 의사소통 회의체를 마련해 노경 관계 개선에도 힘을 신는다는 방침이다.

U+홈서비스는 1월 2일 LG유플러스가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됐다. 정용일 U+홈서비스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홈영업팀·정책팀, 모바일영업팀 등을 두루 거쳐 홈영업 담당을 지내며 홈·미디어 사업 및 대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재훈 기자 yes@

집콕, 고기 Cook... 대형마트 육류 판매 '날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외식업소 이용객 32.7% 뚝
최근 2주간 하나로마트 육류 판매액 전년비 52.3%↑
돼지고기 상승 전환하며 경매시장서 11일 연속 올라

충남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대부분의 끼니를 집에서 해 먹고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주로 고기를 사다 요리한다. 하지만 최근 마트에 갈 때마다 가장 상태가 좋은 부위는 다 나가고 없어 정육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 일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외식을 꺼리고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600여 개 외식 업소의 고객 수는 32.7%가량 급감했다. 메뉴별로는 한식이 36.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일식·서양식(36.3%), 중식(30.9%)이 뒤를 이었다.

한식당을 찾은 손님이 뜸해지는 만큼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소비자는 크게 늘었다. 최근 2주간(2월 17일~3월 1일) 이마트의 소고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신장했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도 11.3% 신장세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육류 매출 신장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신장했고, 돼지고기 매출은 7.7% 증가했다. 수입고기도 15.4%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측은 관계자는 “한우, 수입고기는 지난해보다 빨리 대규모 행사를 열었고, 돼지고기는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행사를 진행해 매출이 상승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식자재 매출이 오르세인 것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농협유통이 이끄는 하나로마트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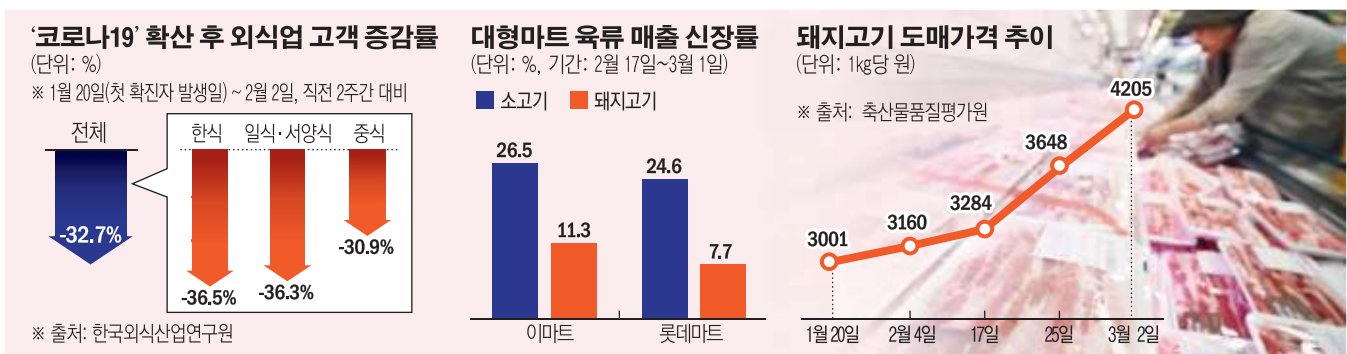
육류 판매 신장률이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에 있는 24개 하나로마트의 최근 2주간 육류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한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유통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생필품 수요 못지않게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이 늘면서 식자재 매출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면역력 증진에 좋은 육류 매출이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육류 소비가 늘자 지난달 초만 해도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다 외식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던 돼지고기 도매가는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경매시장에서 11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906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평균 도매가인 3505원보다 17%가량 떨어졌으며, 2011년 이래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저조한 소비 흐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하며 반전됐다. 외식이 줄어든 대신 가정에서의 수요가 늘며 돼지고기 도매가가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꾸준히 올라 평균 3688원에 판매되고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과 함께 식자재 매출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여기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 매출도 증가했는데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업체들이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면서 최근 며칠 새 증가 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개학 연기에 유아동 콘텐츠 업계 ‘활기’

토이저러스 온라인 매출 336% 늘고, CJ오쇼핑 교육상품 주문량 1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3월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학습 공백기 반사이익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롯데마트가 집계한 최근 2주간(2월 18일~3월 2일) 토이저러스 온라인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 데 이어 초·중·고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캐머스가 운영하는 롯데닷컴에서도 같은 기간 미끄럼틀이나 트램펄린, 주방놀이와 같은 실내 대형완구 매출이 전년 대비 30%,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 완구는 27% 신장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루미큐브 클래식’과 ‘상어 아일랜드’로 유명한 ‘코리아보드 게임즈’로 전년 대비 117%, ‘스텝2 뉴곰동산 주방놀이’와 ‘리파인 카카 지붕차 미끄럼틀’은 각각 142%, 18%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사(1~15권 세트)’와 같은 도서나 가정 학습을 위한 프린터 복합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상품도 많이 찾



큐비츠 엑스트림 보드게임

았다. 롯데닷컴에서는 ‘오피스 칼라 잉크 젯 프린터 복합기 XP-2106’와 ‘개는 G 3915 무한잉크 복합기’,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 등이 판매 상위에 올랐다.

장난감뿐 아니라 개학 연기 후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로 홈스쿨링 상품도 인기다.

CJ ENM 오쇼핑부문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유아동 도서와 교재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상품의 주문량이 1월보다 170%, 주문금액은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교과 과정 독서 프로그램을 정기배송하는 ‘비룡소 북클럽’은 지난달 26일 TV홈쇼핑

에서 약 3억7000만 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해 목표를 63%를 초과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CJmall은 ‘우리집 홈스쿨링’ 기획전을 열고 유아·학습·영어·독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홈스쿨링 상품을 고객에게 큐레이션한다. ‘리딩게이트 영어독서프로그램’, ‘비룡소 월간배송 독서프로그램’ 등 초·중·고생 어학 및 독서 습관을 길러줄 상품부터 ‘아이습관 아이챌린지’, ‘집보리 맥포머스 다이내믹브레인’ 등 유아 교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TV홈쇼핑에서는 꾸준히 공부 습관을 길러줄 콘텐츠 상품을 강화했다. 4일 낮 12시 35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전 과목 교과를 AI로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웅진 스마트올(상담신청상품)’을 방송한다. 이어 하루 20분 스토리텔링 학습으로 자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EBS초목달 12개월 무제한 수강권’(28만9000원)을 6일 오전 11시 35분 CJ오쇼핑 단독 방송한다. 10일 오전 10시 25분에는 어린이 영어동화도서 관으로 불리는 ‘리틀팍스 영어애니메이션 12개월권’(18만 원) 방송도 예정돼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임정배 ‘원톱 체제’ 구축한 대상 “R&D 강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

식품·소재BU 통합경영체제

대상이 임정배(사진)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임 사장 ‘원톱 체제’ 아래서 대상은 경영 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달 29일부로 임정배, 정홍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정배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말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품BU와 소재BU로 이원화해 경영해 왔던 대상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통합경영으로 회귀하게 됐다.

대상은 “정홍언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독 대표체제로의 변화를 위한 대표이사직 사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 사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임정배 단독 대표 체제는 향후 3년간 계속된다.

임 사장이 식품BU 수장을 지낸 2017년부터 대상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됐다. 대상은 2017년 967억 원, 2018년 1202억 원, 그리고 지난해 1303억 원의 영업이익



을 기록했다. 2018년 식품BU의 영업이익을 553억 원 규모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 급증한 수치다.

대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는데 이는 식품업계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감안할 때 선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와 미국 등 해외 사업 호조와 국내 간편식, 온라인 제품 매출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단독 대표가 된 임 사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지난달 마곡연구소 신축에 102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마곡연구소는 2022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글로벌 식품·소재 사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R&D센터 운영을 통해 연구 특화 클러스터 단지 내 교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올봄 유행할 선글라스 디자인은?

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2층 매장에서 모델들이 SS시즌 선글라스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아이웨어(안경/선글라스) 자체 브랜드인 ‘뷰(VIEW)’는 5일부터 본점·잠실점 등 롯데백화점 5개 매장과 엘롯데·롯데닷컴 등 온라인몰에서 신상품을 출시한다

뉴시스

신세계인터 ‘텐먼스’ 론칭 한 주 만에 두 달 물량 완판



계절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착한 패션’이 통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지난달 17일 론칭한 시즌리스 패션 브랜드 ‘10M-ONTH(텐먼스)’가 론칭 일주일 만에 두 달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텐먼스는 오픈 당시 4월 말까지 판매를 예상하고 준비했던 초도 물량이 일주일 만에 90% 이상 판매되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35개 제품 중 15개가 이미 재생산에 들어갔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존 일정보다 20일 앞당겨 신제품 9종을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대한민국 패턴 명장과 함께 제작한 ‘마스터핏 재킷’으로

판매 시작 당일 자체 온라인몰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 베스트셀러 제품 1위에 올랐다. 2주차 매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제품은 1차 생산량이 모두 팔려나가 리오더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은 텐먼스의 호실적에 대해 “브랜드 기획 당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여성들이 시즌과 관계없이 가장 자주 입게 되는 ‘꼭 필요한’ 품목만을 선정해 신규 브랜드를 론칭한 결과”라며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오래 입어도 변함없는 고품질의 원단을 사용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가치주 시대 도래… 低평가·소외 주식 찾아야”

편드를 말하다 ⑧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닷컴버블’ 당시 성장주 강세, 현재 비슷한 상황 반복
비즈니스 모델·투명성 갖춘 성장 유망 기업 발굴 주력

“성장주 이익 사이클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 다음은 가치주의 차례다. 주변에서 어떤 자산이 저평가 상태고 귀한지,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됐는지 발굴해야 한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 3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로 꼽히는 이 대표는 저성장 국면에서 가치주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다음 투자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성장주 중심의 시장은 가치투자자에게 가혹한 시기였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소위 로볼(Low Volatility) 전략이 먹

혔고, 패시브 펀드 자금도 쓸렸기 때문이다. 성장주로 분류되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과거 ‘닷컴버블’ 당시에도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시대에 저금리 현상이 벌어졌고, 글로벌 성장성 둔화에 따라 다시 가치주 선호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 성장주의 밸류에이션(내재가치)을 계산할 때 DCF(Discounted cash flow)를 활용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데, 할인에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자율을 대입한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오고,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커지는 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 보니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즉 금리가 내리면서 성장주가 상승했지만, 이 역시 사이클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더이상 팔 우물이 없다면, 고인 물을 정화해서 마시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과거의 성장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투밸류가 장기간 보유한 기업에 강한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국내 기업의 주주환율은 글로벌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기업 재평가에 분명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따지는 ESG 투자 측면에서도 주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원 대표는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주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며, 현재 저평가된 성장주를 보유하는 게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이채원 대표는 겸직하던 최고투자책임자(CIO) 자리를 내려놨다. ‘가치투자 역시 진화한다’는 지론에서다. 과거에는 전통 가치투자 전략에 따라 자산 보유 현황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엔 비즈니스 모델 등을 분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지배구조, 사업의 전망, 비즈니스 모델, 투명성 등 정성적 부분을 분석하는 것 역시 가치투자의 일환”이라며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일지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코로나19’ 시총 감소, 전남·강원 가장 컸다

제조업·레저업 많은 전남 15%·강원 9.3% 줄어
확진자 수 급증 대구 6.8% ↓ ... 인천 0.25% ↑

코로나19로 인한 상장사 시총 감소 규모가 전남과 강원 지역이 유독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와 레저업 기업이 몰려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달 새 이들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24% 증발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2206개사(코스피 799사, 코스닥 1407사) 시가총액(2일 종가 기준)은 1514조6187억 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5.17%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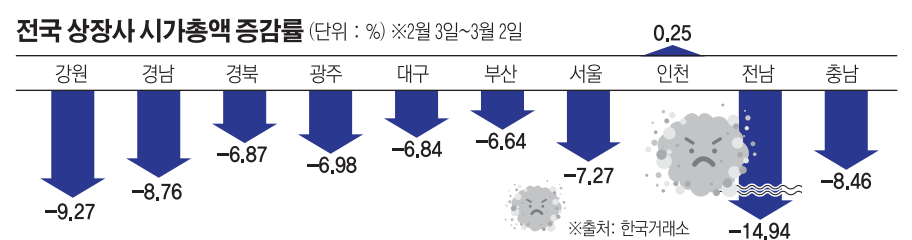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전남(-14.94%)과 강원(-9.27%)의 시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본사가 전남인 상장사는 총 18개사로 한국전력공사, 보해양조, 금호산업, 조선내화, 고려시멘트, 남화토건, 상상인더스트리 등 제조업이 대다수다. 특히 코스피 기업이 15.28% 감소해 코스닥(-10.22%)보다 타격이 컸다.

강원 지역에서도 코스피 기업(-

11.48%)이 코스닥(-4.49%)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용평리조트, 강원랜드, 대명코퍼레이션 등이 관광객 수 감소로 주가가 급감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이들 주가는 각각 14.29%, 14.94%, 16.25% 급락했다.

하건행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됐다”며 “대면 접촉을 지양하면서 서요식업·숙박·운송·여가업에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전염 방지를 위해 일부 공장들의 가동 중단이 이뤄지며 생산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



구의 경우 시총이 6.84% 줄었다. 구영테크와 평화정공, 삼보모터스, 에스엘, 평화산업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이 위치해 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가 공장 생산을 중단하면서 부품업체도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남(-8.76%), 충남(-8.46%), 서울(-7.27%), 광주(-6.98%), 경북(-6.87%), 부산(-6.64%), 울산(-4.58%) 지역 상장사 역시 시총이 큰폭으로 줄었다. 경남은 한국항공

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샘코 등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충남은 영흥철강, 하이스틸, 대양금속 등 철강업이 포진해 있다. 반면 인천(0.25%), 세종(-3.07%), 경기(-3.12%)는 다른 지역보다 나름 선방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인양행, 폴루스바이오팜, EDGC,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인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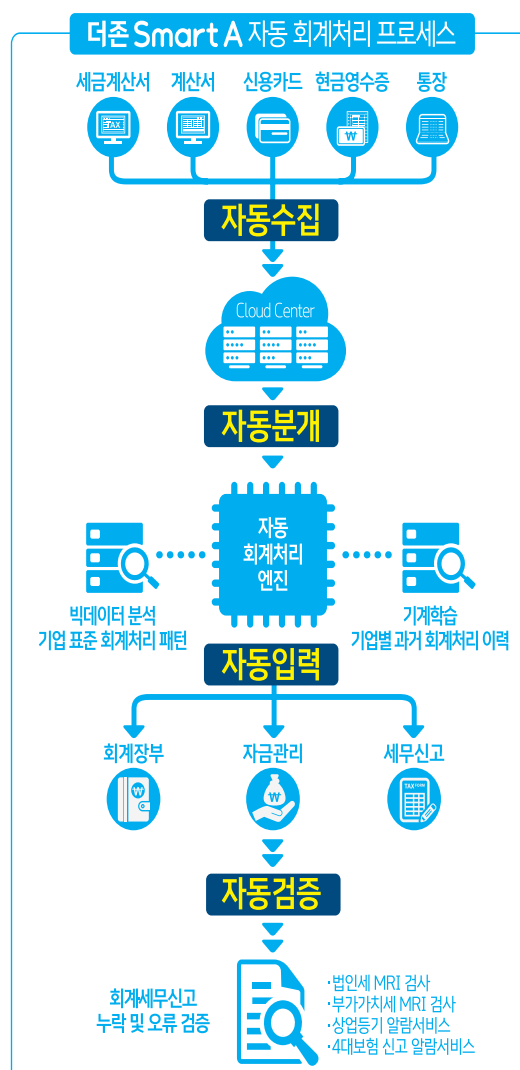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상장 징크스’ 없이 5년 연속 성장

상장사 재무 분석

파크시스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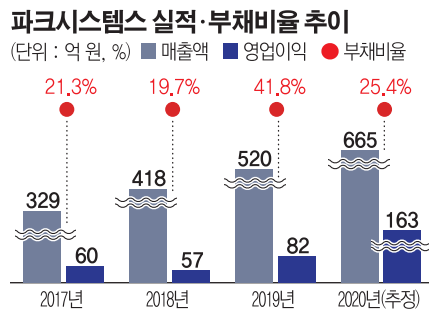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파크시스템스가 ‘상장 징크스’를 깨고 상장 이후 5년 연속 20%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역시 원자 현미경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 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5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보다 24.3%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 늘었고 순이익은 84억 원으로 50.0% 신장했다. 파크시스템스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2500여만 원의 영업손실을 내 흑자기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주요 주주의 매출이 인식되고 비용 증가가 마무리되면서 4분기에만 8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생산·판매하는 나노계측기기 전문기업으로 1997년 설립됐다. 원자 현미경은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등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나노 과학기술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파크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 제조 기술은 정부의 국가 핵심 기술 47개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성 평가 특례로 2015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통상 신성장기업이 상장 이후 실적이 급락하는 ‘상장 징크스’ 없이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증가해 왔다.

2015년 매출 200억 원에서 이듬해 245억 원으로 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329억 원, 418억 원의 매출을 냈다.



스마트기기·반도체 개발에 활용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 추세

올 매출 665억, 28% 성장 기대

2015~2019년 매출액 증가율은 20~30%대를 웃돈다. 스마트 기기와 IoT(사물인터넷)에 힘입은 각종 센서와 광전자 소자, 그리고 LED, LCD와 같은 조명,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과 생산품질관리에 원자 현미경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수익성도 돋보인다. 상장 이후 20억 원에서 60억 원을 전후로 영업이익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에는 50%에 근접한 신장세를 거뒀다.

올해 전망은 더욱 좋다. 산업용 원자 현미경의 수요가 확대하는 가운데 인력 채용과 해외 거점 확보가 마무리돼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 전망이다.

파크시스템스의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 665억 원에 영업이익이 163억 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매출은 28.0%, 영업이익은 100.0%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부채비율은 50%를 밑돌고 유동비율이 400%를 넘는 등 재무 안정성까지 갖췄다.

조남호 기자 spdran@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포기없다”

실적 악화에 코로나19 악재 겹쳐

임원 면담 중단 ‘딜 무산’ 추측說

“당초 계획대로 인수작업 진행중”

이르면 이번주 경영진 인사 단행

HDC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악화와 함께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7조80억 원, 영업손실 4274억 원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낸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당기순손실은 8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327%나 늘었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를 주당 4700원을 적용해 3228억 원에 인수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신주) 약 2조1772

억 원 규모(신주가격 5000원 적용)의 유상증자(3자배정)에도 참여해 올해 4월 30일까지 신주(보통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은 당초 계획대로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지사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마쳤고 심사가 대부분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4월 말쯤 딜 클로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구주 인수의 경우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금 320억 원가량이 지급됐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달하는 잔금은 내달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이후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때문에 지금 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항목에 ‘천재지변’ 항목이 들어 있는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이에 적용하는 것

은 힘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인수를 포기할 경우 구주인수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딜의 10%에 달하는 2500억 원가량의 자금 역시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별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5484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의 딜 무산에 따른 책임론과 배임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디벨로퍼를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의 향후 큰 그림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정몽규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임원 면담을 멈춘 것이 딜 무산을 감안한 것이라 추측에 대해서 HDC측은 “양측의 일정상 잠시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미 최근 면담을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IB업계에서는 추측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HDC그룹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잉글우드랩, 호실적에 현금자산 5배 ‘경충’

잉글우드랩이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호실적 속에 현금자산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잉글우드랩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25% 증가한 1억1437만 달러(1333억 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79만 달러(67억 원), 195만 달러(23억 원)로 흑자 전환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고객사와 글로벌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로 수익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흑자 전환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현금 자산이다. 잉글우드랩의 지난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472만 달러(55억 원)로,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전년 대비 4.8배 증가했다.

앞서 잉글우드랩의 현금자산은 2016년 1749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거듭되는 손실 속에 급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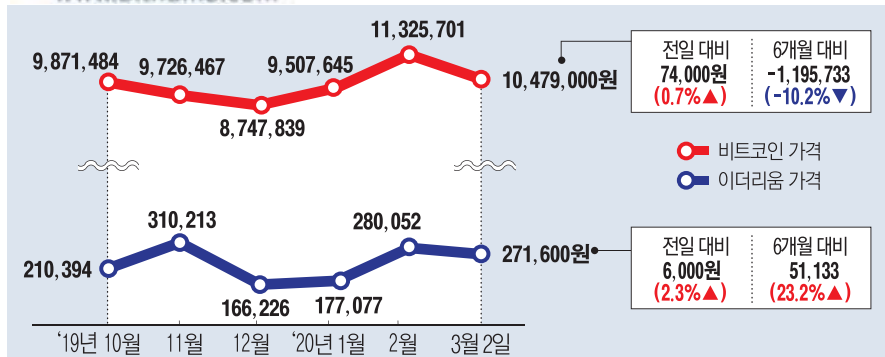
지난해 역시 차입금과 리스부채 상환, 장기금융상품 취득 등에서 현금 지출이 제법 있었지만 순이익 발생에 따른 현금 유입 규모가 더 큰 탓에 전체 현금자산도 다시 증가할 수 있었다.

부채의 경우 만기 1년 이내의 유동성장기부채가 1111만 달러(130억 원)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총 유동부채 역시 늘었다. 다만 유동자산 규모가 유동부채보다 많은 덕분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이어갔다.

고대영 기자 kodae0@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3월 3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투자수익률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999-8245



“상품성 떨어진다” 재건축 찬밥 된 컨소시엄 시공

브랜드 특화설계 적용 어렵고
하자 발생땀 책임소재 불분명

작년 4분기 시공 23% 그쳐
건설사 “과열 경쟁 원인” 지적

#“컨소시엄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명품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단독 시공사 선정밖에 없다.”(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원 A씨)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최근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공동도급) 불가’ 조항을 명시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탓에 재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무엇보다 단일 브랜드 유치로 ‘상품성’을 확보, 제대로 ‘값’을 받겠다는 속내도 작용했다. 컨소시엄 아파트가 단일 브랜드 단지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컨소시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컨소시엄에 대한 ‘무조건’ 불가는 오히려 입찰 건설사를 제한하고, 과열 수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현황 ※사업단계 조사시점 : 2019년 4분기

	단독 시공	컨소시엄 시공	전체
아파트재건축	37곳	7곳	44곳
지역 재개발	94곳	33곳	127곳
총	131곳	40곳	171곳

※출처: 부동산 114

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장은 총 171곳으로 이 중 컨소시엄 시공 사업지는 40곳(23%)에 불과했다. 그나마 재개발 구역의 경우 84곳 중 33곳(35%)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44곳 중 컨소시엄(공동 시공) 단지는 7곳(15%)에 그쳤다.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들뿐 아니라 현재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는 단지에서도 컨소시엄은 ‘찬밥’ 신세다. 한남3구역처럼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입찰공고에 아예 못 박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단독 수주 입찰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이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입찰공고에 넣지 않자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롯데건설의 단독 입찰로 이어졌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시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단독입

찰의 경우 특화설계를 내세워 브랜드별 강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시공사가 함께 짓는 컨소시엄의 경우 특성상 특화설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공사사들 간 의견 조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컨소시엄을 기피하는 이유다.

실제 정비사업 후 매매시장에서도 단독 시공 아파트가 상승폭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공동 시공 단지) 전용면적 112㎡형은 입주(2018년) 당시 26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30억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단독 시공 단지) 전용 115㎡형은 같은 기간 3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6억 원 이상 올랐다. 단독 시공 단지가 집값도 비쌀 뿐더러 시세 차이도 더 크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컨소시엄 기피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분명 조합의 권한이지만 정비 물량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의 요구만을 내세워 단독 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과열 경쟁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너무 비싼 ‘판교구청 부지’

3.3㎡당 1억 넘어… 응찰자 없어 매각 또 불발

판교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구청 부지’ 매각 작업이 또다시 불발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대를 매입할 기업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입찰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번 매각은 무산됐다.

대지 면적이 2만5719㎡에 이르는 이 땅은 판교구(區) 신설에 대비해 구청 부지로 마련된 땅이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판교구 신설을 막으면서 성남시는 이 땅을 주차장 등으로 썼다. 지난해 7월 성남시와 시의회는 판교구청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매각 대금으로 학교 신설·교통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매각 공고를 내면서 판교구청 부지에 첨단·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규모와 매출이 큰 신형기업을 데리고 와 매각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노리겠다는 구상이었다.

매각 결정 이후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판교구청 부지를 금싸라기 땅으로 꼽았다. 판교구청 부지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데다 경부고속도로와도 가까운 ‘노른자위’에 있어서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빈 땅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도 판교구청 부지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매각이 결정된 이후 IT업계를 중심으로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묻는 문의가 꾸준했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구청 부지’.
사진제공 성남시

다. 업계에선 카카오와 NC소프트 등이 입찰에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정작 12월 열렸던 1차 입찰에선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지난달 카카오는 2차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NC소프트 관계자도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성남시가 땅값을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불만을 표한다. 성남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판교구청 부지 매각을 위한 기초 가격으로 8094억 원을 책정했다. 3.3㎡당 약 1억385만 원꼴이다. 2018년 판교의 오피스빌딩인 알파돔시티 6·3블록(연면적 7335㎡)은 3.3㎡당 1720만 원대에 거래됐다.

이번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추후 매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서울 청약통장 1순위 306만2066명

1월에만 3만3137명 늘어

서울지역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청약하려는 수요도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

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서울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은 사람은 306만2066명에 달했다. 한 달 동안에만 1순위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무려 3만3137명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월별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다.

특히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

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서울 1순위 청약 자격 보유자는 1월 기준 370만8196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청약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 단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차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한솔홈데코 「받고 또 받고」 이벤트



한솔홈데코 유튜브영상을 보면
푸짐한 상품권이 와르르!
기간 : 2020년 3월 1일(일)~3월15일(일)

▶ 자세한 내용은 한솔홈데코 홈페이지(www.hansolhomedeco.com) 참조.

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철도시설공단 제재로 조달청 입찰제한 받자 소송... 법원 "일괄 제한은 위법"

특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두산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공사 관련, 이달 6일까지 총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터널 굴착 시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기성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일반 발파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두산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다른 관급공사 입찰 참여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조달청은 1월 추정금액 2195억 원 규모의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두산건설은 조달청에 해당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정부가 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근거로 정부 세종 신청사 입찰 참여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두산건설은 이미 공공기관 운영
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만큼 국가계약에 관련된 입찰 참여도 당연히 제한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철도시설
공단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
에 참여할 자격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제재
를 예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
반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업활동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며 "정부가 두산건설의 입찰 참가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마스크, 살 수 있을까

3일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오랜 시간 대기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대법, 채용비리 혐의 인정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
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사진) 전 우린은행장이 실형을 확
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는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
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청탁 대상 지원자들
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
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고객 거
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
사 청탁을 받고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조
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
 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은행장을 정점으
 로 인사담당 임원, 인사부장 등이 입사 청



함께 기소된 남모 부행장 등 5명은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정한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의 주체인데 정작 그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전 행정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남 부형장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인사부장 등 4명은 각각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개학연기 초등생 긴급돌봄 지원

우리동네키움 61곳·지역아동센터 435곳서 돌봄 시행

서울시가 초등학교 개학 2주간 추가 연기로 인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등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센터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우리동네기움센터는 방과 후나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다.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2월 18일 현재 61곳이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4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불가피하게 우리 동네키움센터와 지역이동센터에 대해 일괄 휴원 조치를 단행했다. 단 종사자들은 정상 출근해 맞바티 가정 등의 활동을 위한 긴급돌봄은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61곳, 지역 아동센터 435곳 등 전체 시설이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체 인원의 15%(키움센터 177명·지역아동센터 1762명)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돌봄 시에도 급식은 정상 제공된다”며 “지역아동센

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육자의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사자 및 돌봄아동 발열 체크, 외부인 출입 자제 및 출입대장 관리, 감염관리 전담 직원 지정 등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지현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은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급적 가정돌봄이 바람직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오후에도 운영하고 방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
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98명이다. 이 중 83명은 격리 상태며
15명이 퇴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코로나19 극복” 50억 모금 나선 조용병 회장

〈신한금융〉

그룹 계열사·재단 30억, 나머지는 와디즈와 소셜 기부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 등 캠페인 제안...“힘 모아 위기 극복” 강조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개월간 50억 원을 목표로 기부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희망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캠페인은 세 가지 콘셉트로 진행된다.

우선 질병대책본부, 광역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생필품 키트와 밀 박스를 지원한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도 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은누리상품권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부금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가 20억 원을 목표로 매주 분담해 마련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도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회복을 돕는 공모사업 방식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기부도 받는다. 신한금융과 와디즈가 함께 만든 소셜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는 5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신한금융은 ‘코로나19’ 피해를 위해 지난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노인과 아동 등 소외계층에 총 20만 개의 마스크를 배포했고, 피해가 극심한 대구지역에는 1만 개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

또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 연체이자도 면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매입회환 입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체 가산금리(1.5%)를 1개월 면제한다. 수출환어음 부도도 1개월도 유예하고 있다. 신한은행 중국 현지법인은 현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후원금 200만 위안(3억4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간 월



조용병(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과 성용락 감사, 김정훈 신한금융 부장, 김봉래 이사, 김석동 이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

한라그룹, 성금 5억 기부

한라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라그룹 지주회사 한라홀딩스,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 만도, 건설 부문 계열사 한라 등이 함께 마련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 성금은 재난 취약계층, 의료진, 방역 관계자 등 구호 물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관련 인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새 대표



현대해상이 2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 이사에 조용일(왼쪽 사진) 총괄사장과 이성재(오른쪽) 부몬총괄 부사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용일 내정자는 1984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1988년 현대해상으로 합류한 뒤 업무담당 본부장, 기업보험부부장,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역임했다. 이성재 내정자는 1986년 현대해상에 들어와 해상업무부장, 경영기획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기업보험부부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확정되면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KEA 상무이사에 임호기 본부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신임 상무이사에 임호기 산업지원본부장을 선임했다.



임상무이사는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EA에 입사, 전자정보통신 관련 각종 규제와 업계의 애로 개선을 통해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2015년 무역의날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임 상무이사는 특히 2017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융합산업본부를 이끌면서 융합산업 초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 IoT 가전기업의 빅데이터 공동구축과 활용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오주한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분당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오주한 교수가 의학 분야에서 국내외 업적이 뛰어난 석학들을 엄선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견관절 분야 및 회전근개 질환,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 교수는 현재까지 견관절 관절경 수술 5200여 개, 어깨 인공관절 수술 500여 개, 어깨 골절 수술 1000여 개 이상을 실시하는 등 특히 어깨 분야에서 탁월한 진료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 및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학과장이자 관절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오 교수는 대한전·주관절학회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김종석 라이프센터 차움 원장 선임

성광의료재단은 라이프센터 차움의 제7대 원장으로 김종석 교수(가정의학과)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종석 차움 선임 원장은 1970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를 거쳐 2014년 차 의과학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라이프센터 차움에서 헬스라이프센터장, 외래진료부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정명훈 “일본 공연 후 자가격리”

지휘자 정명훈(사진)이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이다.



정명훈은 최근 일본 공연을 마친 뒤 이탈리아 지휘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프랑스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마지오 뮤지칼레 피오렌티노 오케스트라는 7일 공연 지휘자를 정명훈에서 다니엘레 가티 로마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감독으로 교체했다.

정명훈 측은 3일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해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쿄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인 정명훈은 지난달 19일, 21일, 2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도쿄 필하모닉을 이끌고 비제 오페라 ‘카르멘’을 지휘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과 함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유정선 기자 dwt84@

BTS ‘온’ 빌보드 ‘핫 100’ 4위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온’(O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4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타이틀곡 ‘온’이 ‘핫 100’ 최신 차트에 4위로 진입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이번 기록으로 ‘핫 100’ 10위권 곡을 한국 가수로는 가장 많은 3곡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 ‘페이크 러브’(FAKE LOVE)가 빌보드 ‘핫 100’ 10위를 기록했으며, 직전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가 8위에 오른 바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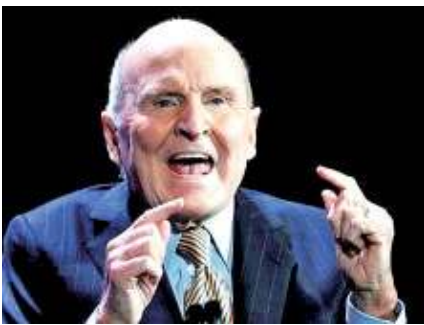
‘세기의 경영자’ ‘중성자탄 잭’ 극단적 평가

‘GE 성공신화’ 잭 웰치 별세...“미국의 보물 가치 배가” 이면에 무자비한 인력 삭감

제너럴일렉트릭(GE) 성공신화를 이끌었던 잭 웰치(사진) 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잭 웰치 전 GE CEO는 전날 자택에서 부인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부인은 웰치의 사망 원인이 신부전증이라고 밝혔다.

관료주의적인자기만족을 부숴버리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잭 웰치는 그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별명을 얻게 됐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999년 그에게 ‘세기의 경영자(Manager of the century)’라는 별명을 붙였다. 당시 제프리 콜빈 포춘 편집장은 “잭 웰치는 전격적 을 펼치는 것처럼 저돌적으로 행동했지만 수년 뒤에 당시 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며 “그는 미국의 보물 같은 기업 중 하나를 받아 이것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웰치는 그것(GE)을 깨뜨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잘 변모시켰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그 가치를 배가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웰치는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약 10만 명을 해고해 ‘중성자탄 잭(Neutron Jack)’이라는 악명도 얻었다.

웰치는 1960년 플라스틱 사업부의 화학 엔지니어로 GE에 첫발을 내디뎠다. 1972년 부사장이 됐으며 7년 후에는 부회장에 올랐고 1981년 4월 45세 나이로 GE 역사상 최연소 회장에 올라 무려 20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그는 GE 수장으로 있으면서 1등이나 2등이 아니면 도태시킨다는 경영철학으로 무수한 사업을 매각했지만 반대로 다른 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이어서 회사 영역을 금융서비스와 미디어 등으로 크게 확장했다. 중간급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부풀려진 관료주의를 간소화했다. 또

성과가 최하인 직원은 무조건 쳐낸다는 원칙으로 무자비한 인력 삭감을 진행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CEO 취임 첫 5년간 GE 인력은 41만1000명에서 29만9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경영혁신 결과 GE 시가 총액은 웰치가 CEO로 있는 동안 120억 달러에서 4100억 달러로 팽창했다.

그러나 웰치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기 수일 전에 퇴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했던 GE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씁쓸한 신세가 됐다. GE 순이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몰락한 GE캐피탈의 숨겨진 손해와 전력사업에서의 계속되는 부진으로 수년째 급감했다. 웰치가 뽑았던 후계자인 제프리 이멜트는 2017년 GE 몰락의 주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퇴장했고 그 뒤에도 GE는 CEO가 잇따라 갈렸다.

말년에 웰치는 자신이 구축했던 GE가 해체되는 것을 괴로운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의 친구들에 따르면 웰치는 자신의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A’ 점수를 줬지만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F’를 부여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정보 △재정은 응답당관 고흥우

◆케이프투자증권 ◇신규선임 △채권사 업무부장 전무 박준성 △채권투자본부장 상무보 문복수 △채권투자팀장 부장 양현석

◆KBS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장 황대준

◆경향신문 <보직변경> △이사 편집인 양권모 △이사 경영본부장 겸 전략기획실장 장정현 △논설고문 조호연 △미디어사업본부장 겸 문화사업국장 박구재(국장 승격) △논설위원실장 이종근 △사회경제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박종성 △광고국장 김석 △미디어 전략실장 박재현 △경향플러스국장 박문규 △경영지원국장 이종혁 △논설위원실 논설

위원 조찬제 △ 차준철(부국장 승격) △전략기획실 전략경영팀장 임태열 <승격> ◇국장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대용 △편집국 문화부 선임기자 이기환 △경향플러스 기획위원 권오선 ◇부국장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의동 △편집국 경제에디터 안호기 △ 편집부 선임기자 박세영 △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이상호 △ 경태영 △전략기획실 경영정보팀장 노병철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최정운 △ 시설관리팀장 양재환 △미디어 제작국 정보기술팀장 강무성 △독자서비스국 수도권1팀장 김병각 △광고국 광고제작팀장 염기명 ◇부장 △편집국 사회부장 김종목 △ 모바일팀장 김창호 △ 관재현 △ 디자인팀 김상민 △ 국제부 김진우 △ 경제부 최민영 △ 산업부 정유미 △ 사

진부 김기남 △ 스포츠산업팀 김세훈 △ 스포츠편집-온라인부 남민배 △미디어전략실 DB관리팀장 유기정 △ DB관리팀 오세동 △운전국 운전1팀 나계필 △ 운전2팀 변영구 △ 이상순 △독자서비스국 판매관리팀장 윤효진 △광고국 광고3팀 김병희 △경향플러스 관리팀 김광영

부음

▲이순례 씨 별세, 양희곤(KT전남·북부부 홍보담당) 씨 모친상 = 3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62-220-3352

▲김용운 씨 별세, 김호영(연합뉴스TV 부산광고지사장) 씨 부친상 = 3일, 부산서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오전 9시, 051-949-1024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는 그저 뒷짐을 지고 미국 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전 세계적 사태를 구경만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몰락, 아니 그 이전에 미국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도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긴급 의료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국제 협력을 주도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압력과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난 사스 사태와 유사한 정도의 유행병으로 알고 과도한 심리적 위축을 걱정하다가, 결국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염병 창궐 국가가 되었다. 당초에는 중국 생산기지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래되는 중국발 공급사슬의 붕괴를 걱정하다가, 결국 한국 내 모든 산업생산 기지가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를 우려하는 국제적 시선은 한국의 바이러스 사태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의료 여건과 의료 기술이 선진적인 한국에서의 사태 전개 과정은 최근 이탈리아와 이란 등지로 급속히 확산 중인 바이러스의 미래를 점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 대부분 국가의 의료 여건이 한국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추세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중세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에 준하는 사태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는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과거 사스 때의 경험에 준하여 그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6.1%에서 2020년에는 5.6%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3년 사스 사태 때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4%였던 반면 2019년에는 17%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기존에 경험하였던 것과는 궤를 달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즉 중국으로의 원부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호주,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일본도 2019년 4분기에 이미 -6.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독일까지 침체 국면의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하면서 유럽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여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가운데 언

제라도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개될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태어진 신종 바이러스 사태는 미·중 무역전쟁이 이미 촉발시킨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켜,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신 지역 가치사슬(LVC)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안정적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 역할을 했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충격에 직면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 그 충격의 흡수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었다. 최근 세계가 직면한 신종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리더십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는 결국 선진 의료기술과 대규모 의료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과 함께 그저 뒷짐을 지고 미국 내에서의 바

이러스 확산 방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전 세계적 사태를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미국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기까지 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이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나올 것이다.

침담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 민주당의 무능함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몰락, 아니 그 이전에 미국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도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긴급 의료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국제 협력을 주도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압력과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남북 간 협력 및 일본·중국과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보다 국경 간 전염성이 더 큰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명태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겨우내 얼고 녹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서서히 건조되면서 황태가 된다. 황태 덕장 사람들은 추위와 햇볕이 반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본다. 명태에게나 덕장 사람들에게나 황태는 인내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인내는 참음과 기다림이다.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997년. 주요 기업들이 줄이어 도산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왔었다. 많은 금융 회사들이 문을 닫고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투입 덕분에 회생하였다. 국민들은 장롱 속에 있던 금붙이를 모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참고 희망의 시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끈기를 보았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그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가치투자자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증권은 점점 가치에 결맞은 수준으로 거래되기 마련이고 결국 그 증권의 내재가치에 접근하게 된다. 그 긴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할 수는 없으며 때때로 생각보다 몇 년이 늦어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가치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소외되는 동안 투자자의 인내심과 끈기는 시험대에 오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주가는 내재가치에 부합하게 된다.” 그는 인내에 기반을 둔 투자로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폐해를 많이 보아 왔다. 외환위기 이후의 론스타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최근 한국의 라임 사태 등 단기적 수익을 좇아다니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각국의 금융당국

은 이러한 투기자본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은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금융을 통하여 사회에 가치를 심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에 사회책임투자, 임팩트금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 금융 방법론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은 인내를 강조한다. 치고 빠지는 금융,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아 가는 금융이 아닌 ‘참고 기다리는’ 인내자본인 것이다. 인내자본은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고, 한번 투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참고 기다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대기업조차도 공장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일터가 흔들리

고 있다.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얼마나 더 심각한 영향을 줄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세우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이다. 외환위기 때 받았던 빚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 고난의 시기를 사회가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황태처럼, 이를 지켜보면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덕장 사람들처럼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내력이 필요한 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권엔 예외란 없는 모양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물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걸친 투자은행(IB) 업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고위임원은 일주일에 평균 10회 정도였던 외부 미팅이 많아야 2회 정도 겨우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PEF 운용사는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외부 미팅을 삼가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들 모두 사람을 만나고, 기업 실사를 가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정들이 차일피일 연기되거나 일정이 취소되니 속이 탄다고도 했다.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인 여러 매각 건들도 코로나19 여파에 진통을 겪고 있다.

기자수첩



김나은 자본시장2부/better68@

코로나19, 투자시계도 멈춰 세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코로나 확산 여파에 중국 등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마뒀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인수 무산설에 속앓이하다 애초 합의했던 매각가(645억 원)보다 150억 원이 깎인 가격에 가까스로 제주항공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와 회수’라는 투자시장의 선순환 고리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전된 총알이 많은 PEF가 떠나 할 것 없이 매물을 사들였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되파는 엑시트(투자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PEF의 어려움은 곧 이들의 투자 결정 뒤에 유한책임투자자

(LP)로 참여한 연기금이나 공제회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M&A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 재편이나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이 있다. M&A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PEF는 한계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을 한다. 이들의 순기능은 기업과 산업 경쟁력으로 환원돼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냥 강화 기조로 선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M&A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확립해 민간자본이 벤처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안토니오 비발디 명인
“거기엔 말이 없다. 오직 음악만 있을 뿐.”
‘붉은 머리의 사제(司祭)’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이탈리아의 성직자,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들어봤다고 말하는 ‘사제’ 작곡가. 오늘은 그의 생일. 1678~1741.

☆ 고사성어 / 금성옥진(金聲玉振)
쇠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퍼뜨려 시작하고 옥으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거두어들이며 마무리한다는 뜻. 음악의 율림과 조화 또는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으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출전은 맹자(孟子) 만장(萬章). “집대성이란 음악을 연주할 적에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퍼뜨리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은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음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가락을 시작하는 것은 지(智), 마무리하는 것은 성(聖)에 속하는 일이다.”[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 시사상식 / 노멀크러시
돈, 명예, 권력, 성공 등 사회가 정한 화려한 것들에 질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 ‘보통의’라는 노멀(normal)과 ‘반하다’를 뜻하는 크러시(crush)의 합성어.

☆ 고운 우리말 / 거지주머니
여물지 못한 채로 달린 열매의 껍데기를 말한다.

☆ 유머 /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사장이 직원을 나무랐다. “자넨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게으르네. 뭔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해?”
직원의 대답. “당연히 있죠. 저는 아주 빨리 피곤해집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것도 나라냐”는 지탄 피하기 위한 3가지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학생은 시험성적, 대학생은 취업, 직장인은 실직, 경영자는 실적,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 대부분이 '공포'라는 악마로 탈바꿈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 제도적 보완에 따른 '예측성'과 '극복 가능성'이다.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은 오히려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난관에 직면하면 위기극복을 위한 자기통제가 힘들어진다. 통제되지 않는 생활은 자아를 고갈시키고, 이는 동기 상실로 이어진다. 결국,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시스템은 흔들리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정부의 천수답(天水灘)식 대책에 예측성도, 극복 가능성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승리'를 외칠 게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에 있어 정부가 대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 두 목소리가 나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 역할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신천지에 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을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데스크칼럼

박 성 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반대의견을 밝혔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발표해 놓고는 바로 다음 날 정부 관계자가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는 것 역시가 뜽이나 심리적으로 지친 시민들의 혼돈을 가중하는 아둔한 행태다.

조율되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발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 정부 대책의 엇박자는 사태수습에 치명적이다.

두 번째, 지자체와 정부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공포 확산은 어리석은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내는 긴급알림 문자다. 필자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받은 긴급알림 문자만 15건이다. 하루 3건 가까이 '빠~' 울리는 긴급알림 내용 중 '광화문 주변 집회 금지' 안내만 5건이다. 긴급하게 공포 스트레스 지수만 올리는 불필요한 문자서비스일 뿐이다. 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런 단순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정부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며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것이다. 허상에 불과한 공포조차도

실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격언을 가슴에 담아둬야 한다.

세 번째, 정부 대책의 엇박자와 불안감 조성 최소화를 통한 경제 조기 회복에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1월 소매판매가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소비감소 폭은 2011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2월 3주차 항공기탑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84.4% 폭감했고, 놀이공원 방문객 71.3%, 영화 관람객도 57% 줄었다. 방한 관광객은 48.1% 줄며 반 토막 났다. 백화점과 숙박시설은 20%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3월 소비 지표는 '테러' 수준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일 게 뻔하다.

소비감소는 생산축소를 낳고 이는 고용 위축을 불러일으켜 다시 기업의 투자를 냉각시킨다. 소비감소는 '불황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며 한번 이 순환고리에 발을 담그면 다시 빠져나오는 데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피해 예측과 핀셋 처방을 통해 재정 여력을 바닥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의료·경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의 영역을 생각해 보고 지금 정부가 모르는 무지를 따져보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vicman1203@

설경진의 시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늑장 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컨테이션(contagion)'에서의 대사 중 하나다. 영화 속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다. '컨테이션'은 박쥐에서 시작된 최초 감염자로부터 일상 접촉만으로 3개월 만에 전 세계 10억 명에게 감염이 확산됐다. 아무도 집 밖에 나서지 않게 돼 텅 빈 거리 풍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실 속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유치원이 휴원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개학(개강)이 미뤄졌다. 대형마트나 식당에도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집단 감염과 지역 확산의 양상을 띠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5186명의 확

코로나19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

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3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다. 초기에 방역 역량을 과신해 국민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치중한 나머지 우리 사회의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나서는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섰어야 할 마스크 수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마스크 대란'을 낳았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돌아온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 코로나'라고 했다가 물의를 빚거나 '대구 봉쇄' 발언으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 불필요한 논쟁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첫 코로나19 확진자

가 발생한 뒤 방역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월 14일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18일 소비·내수 진작과 피해 기업 지원, 23일 지하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제안하면서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백신도 치료법도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리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느끼는 중이다. 함부로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조심스럽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도 찜찜하다. 그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저항은 '혹시' 하면서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영화 '컨테이션'의 대사처럼 비난받더라도 대한민국은 강도 높은 조치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 생각난다.

skj78@

사설

한국 경제 성장 1%대 추락 우려되는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0%로 0.3%포인트(P) 낮췄다. 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이같이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충격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심리, 금융시장, 관광업 등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0.5%P나 낮아진 2.4%로 내다봤다. G20 국가 중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18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트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종전 5.7%에서 4.9%로 0.8%P나 내려잡았다. 코로나19 확산이 1분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중국 경제 상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2%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데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도 겹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국 성장을 하향의 배경이다. OECD는 “예망적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심리 회복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OECD의 이 같은 성장 전망도 코로나 사태가 1분기 이후 완화한다는 낙관적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전염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 등으로 계속 번져나가면 서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세계 성장률

이 1.5%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의 전망은 훨씬 비관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 사태가 한국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최소 0.8%P, 최대 1.7%P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종전의 2.1%에서 각각 1.9%, 1.6%로 예측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의 경제 타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2월 하루 평균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7%나 줄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일평균 수출은 21.1%나 급감했다. 3월에도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올해 정부가 목표하는 2.4%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행 전망치인 2.1% 성장도 멀어지고 있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쳤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올해는 1%대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능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최악의 위기에 비상한 대책이 동원돼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방향과 운용방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경기부양 중심으로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세무, 특!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 이끌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나라가 일시 정지된 듯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공포가 엄습하면서 국제 증시는 폭락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앞다투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코로나도 두렵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들려온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말로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하며 소비 활성화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싹새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월부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30% 인하한 것과 비교해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국산차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무이자 할부, 현금 지원 등 판매 촉진 방침을 내놓으며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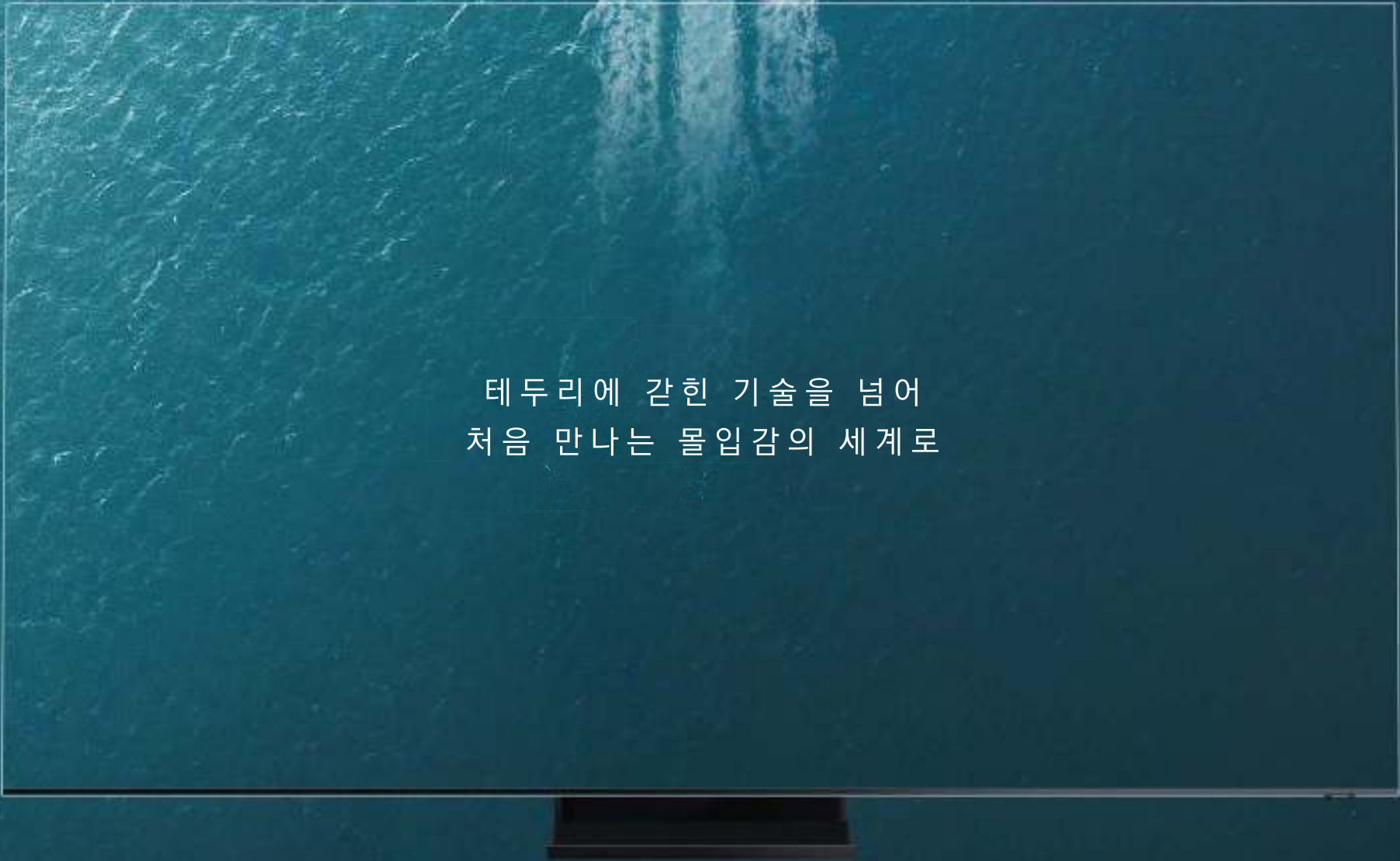
하지만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경기 침체 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됐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국민들이 이미 면역이 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심으로 공포 열어붙은 소비심리가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겨우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 풀리게 될지는 미지수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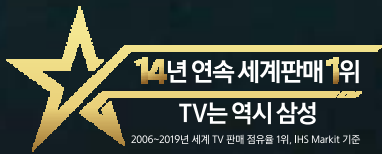


테두리에 갇힌 기술을 넘어
처음 만나는 몰입감의 세계로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QLED 8K



2020 All New QLED 8K 사전판매 2020.3.3 - 2020.3.16

사전판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혜택의 신세계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www.samsung.com을 참고하세요.